신심의 결실 '자비회' 무료급식소 열다

광명사 신도회, 지역민 위한 무료급식 시작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광명사가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주지 법경 스님과 광명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무료급식 봉사로 매주 첫째 ·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문을 연다.

광명사(주지 법경)는 6월 20일 사상구 덕포 시장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봉사자들은 북적대는 시장 골목에서 일일이 지나가는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으며 "누구나 드시고 가시라"고 홍보했다. 이에 300여명 어르신이 무료급식소를 찾아 광명사가 준비한 국수와 떡을 즐겼다.

이와 함께 마련된 전통 민요 및 색소폰 연주 등 흥겨운 무대는 잔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귀현(86) 할머니는 "국수도 너무 맛있고 봉사하는 분들이 생글생글 웃으니 더 기분이 좋았다"며 "지나가는데 들어오라며 맛있게 드시라 하는데 나눔실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고 웃었다. 임윤연(82) 할머니는 "시장을 지나다 음악소리에 멈췄더니 식사하고 가라며 반갑게 잡아주더라. 기분이 정말 좋다"고 했다.

광명사 자비나눔 무료급식은 2달 전 광명사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발심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 법경 스님은 "무료급식을 위해 광명사 신도회 '자비회'를 구성했다"며 "신심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선 신도들을 응원한다. 오늘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자비나눔 위해 신도회 결성
신도들 자발적 의사 '눈길'
6월 20일 덕포시장서 첫 문
지역민 300여명 찾아 '성황'

또한 "광명사는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무료급식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신도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열게 됐다. 가게가 문 닫는 날 장소를 제공한 신도회장의 정성에 감사하다"고 칭찬했다.


광명사가 6월 20일 사상구 덕포 시장에 위치한 한 음식 가게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이 지역민을 격려하고 반기는 모습.

강우석 자비회 신도회장은 "기도성취 도량인 광명사를 어머님을 모시고 자주 갔는데 스님의 봉사와 신행 활동에 감동받아 조금이라도 닮고 싶었다"며 "그동안 법경 스님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고 위로하셨다. 그 어느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신도들이 함께 의논했고 이런 자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광명사 주지 법경 스님은 지역 내 동사무소 무료급식 쌀 지원 뿐 아니라 자비의 일일 찻집, 독거노인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사상구 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도 동참한다. 앞으로 법경 스님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의지다.

한편 이 자리는 덕포1동 행정지원센터, 석이네 아구찜, 정원식품, 소담국수, 민속떡집, 대경유통, 문화사랑발전위원회, K스타원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후원했다.

하성미 기자

웃음꽃 핀 우리 동네 경로당 '늘 기쁩니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경로당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이하 늘기쁜마을)이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에 힘쓰고 있다.

늘기쁜마을은 6월 15일 부산 사하구 장림현대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떡 · 과일 ·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건강박수 · 노래 따라 부르기 ·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은 특별히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지현 스님(관음사 회주)이 직접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늘기쁜마을은 2007년부터 경로당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 노인복지를 위해 대표이사 지현 스님이 제안했고, 현재 경로당방문 사업은 지역 내 경로당 10곳에서 현재 22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부산 사하구 신평과 장림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늘기쁜마을의 행보는 더 의미가 깊다.

현재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마다 늘기쁜마을 환희불교복지대학 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팀을 나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어르신은 이 땅의 뿌리이자 나라의 근본"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큰 문제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며 더 자주 찾아 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기쁜마을은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관광, 경로잔치 등을 실시했으며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제정해 지역 내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해 애썼다. 아울러 호스피스사업을 통해 현재 1560여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전문호스피스봉사자가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봉사해 모범이 되고 있다.


6월 15일 부산 사하구 장림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한 늘기쁜마을 법인 가족들과 대표이사 지현 스님의 모습.

이뿐만이 아니라 환희노인요양원을 건립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늘기쁜마을은 "노인복지를 위해 대표이사 지현 스님이 후원한 지원금이 총 32억이 넘는다"며 "스님의 원력으로 행복한 어르신들이 가득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늘기쁜마을 산하 두송주간노인보호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 주간보호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하성미 기자

진여원, 부산 북구 '호국성지'로

제19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부산 북구를 호국성지로 거듭나게 한 곳이 있다. 바로 부산 진여원이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 · 법명)은 호국의 달을 맞아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6월 15일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봉행했다. 〈사진〉 올해 19주년을 맞았다.

진여 호국영령 위령재는 진여원을 찾아 기도하던 한 전쟁 미망인의 사연을 듣고 시작됐다. 당시 부산 북구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식이 전무했다. 진여원은 1997년 6월 25일 제1회 호국영령 및 군경전물장병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법당에 군경전몰장병 영가를 모셨다. 현재 위패 432위가 봉안되어 있다. 2000년에는 유자녀학자금을 전달했고, 다음해인 2001년 53사단 125연대 6대대와 공동으로 호국영령추모비 건립에 나섰다. 2002년 5월 31일에 진여원은 화명 제3근린공원 내 추모비를 건립하고 기공식을 봉행하고 있다. 현재 호국영령 위령재에는 승가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내빈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남보타월 원장은 "내년이면 호국영령 위령재가 20주년이다. 더욱 뜻 깊게 준비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며 "북구 지역에 있는 보훈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기를 발원하고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가 지속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여원은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에 군법당 건립을 발원하고 불사 중"이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진여호국영령 위령재는 △왕생극락기원 등 밝히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왕생극락발원문 △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문을 맡은 정여 스님은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며 "호국영령 한 분 한 분이 맑고 아름다운 극락에 왕생하도록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용암산 미륵사 제1회 진혼제 및 경로잔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용암산 미륵사(주지 자일)는 6월 15일 제1회 진혼제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사진〉

행사는 헌다 및 헌향 의식에 이어 경과보고, 불우이웃을 위한 백미 10kg 50포대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미륵사 주지 자일 스님은 "미륵사에서 17년 지내며 처음으로 진혼제 및 경로잔치를 봉행하게 됐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련한 자리"라면서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좋은 인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위로보다는 격려로 세상을 이어가며 늘 부처님 마음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원정사 창건 33주년 〈좋은인연〉 출판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주지 법륭)는 6월 18일 창립 33주년 기념문집 〈좋은 인연〉 봉정법회를 경내 대방광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주지 법륭 스님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며 "사부대중 모두 날마다 좋은 날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법륭 스님은 자비와 원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불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박종명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장 외 2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